



대창그룹, 전북도에 장학금 2000만원 기탁

전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김학권)은 경기도 시흥시 소재 대창그룹(회장 조시영)이 장학금 2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김관영 도지사, 조시영 대창그룹회장, 김학권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탁된 장학금은 특별지정장학금으로 기부자의 뜻에 따라 전라북도서울종합학속의 군산 출신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前 재경군산항우회 회장인 조시영 회장의 고향 사랑은 남다르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전라북도서울종합학속의 군산 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올해로 누적 장학금은 1억2250만원, 수혜 학생도 180명에 달한다.

기탁에 참석한 조시영 회장은 군산 출신 기업인으로서 "고향 후배들이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서 전북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길 소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경기침체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향 후배들의 면학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해주시는 깊이 감사드리다"며 "장학금은 고향 후배들이 꿈을 펼치고, 나아가 지역과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중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대창그룹은 지난 1974년 대창공업사로 출발해 비약적 발전을 거듭한 중견그룹이다. 현재 비철금속 황동제품분야 국내 점유율 40%에 이르는 (주)대창, (주)서원, (주)에센테크 등 3개의 상장회사와 (주)태우금속, (주)이엔스틸 등 6개의 비상장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김경수 기자



조시영 대창회장, 군산시 장학금 1000만원 기탁

군산시 교육발전을 위해 (주)대창(회장 조시영)이 22일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前 재경군산항우회 회장인 조시영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1천만원씩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해 왔으며, 현재까지 누적 기탁금이 1억4천만원에 달해 지역의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에도 매년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는 등 특별한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조 회장은 "군산 출신 기업인으로서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기울이고 있는 군산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남다른 애함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군산시를 이끌어갈 후배들이 꿈을 펼치는데 장학금이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임준 이사장은 "오랜 시간동안 변함없이 군산 교육발전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장학금을 기탁해 주어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이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대창은 경기도 시흥 소재로 비철금속 중 황동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 1974년 대창공업사를 설립해 현재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계열사로는 서원을 비롯해 에센테크, 태우금속, 이엔스틸 등 4개 회사가 있다. /군산=김관근 기자

임실군,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 실시

임실군이 지난 22일 강진면을 시작으로 9월 6일까지 하반기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질병의 조기 발견을 통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이동건강검진은 지역 거주자 중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와 직장가입자 사무직 비사무직 근로자가 검진 대상이다.

1차 건강검진 항목은 진찰 및 상담, 신체 측정(신장·체중·혈압·혈당·비만도), 시력·청력·검사, 혈액·축삭 및 흉부 방사선검사와,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 검사 등이다.

이번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 시 국가 임(위암·자궁암·유방암·대장암 등)검진은 임실군과 협약을 체결한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협진을 통해 주민들이 각종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함이다.

김대곤 보건의로원장은 "자신의 건강을 건강검진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여 건강수명을 누릴 수 있도록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하면서 검진 전날부터 8시간 공복을 유지하며 검진을 받아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유의사항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한지로 아동 주거환경 '쾌적하게'

전주시 등 7개 기관, 민·관 협력 통한 아동 건강한 발달·성장 지원

전주시가 민간기업들과 함께 전주한지로 아이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시는 22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구미희) 등 6개 기관과 아동참여형 주거환경개선 '쾌적한 하우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본부가 주관한 이날 협약에는 전주시를 포함해 신협 중앙회 전북지부(본부장 강연수), 전북일보(회장 서창훈), 전주한지협동조합(이사장 최영재), 주거복지협동조합(이사장 김정태), 전북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선희)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토대로 습기와 곰팡이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한지를 활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아동들의 의견을 수렴해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강연수 신협중앙회 전북지부 본부장은 "아동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게 돼 뿌듯하다"고 밝혔다.

구미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장은 "코로나



내9, 기후변화 등으로 아이들의 집다운 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여러 기관과 협력해 전주시 아동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선시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주거 빈곤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해 아동기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장애인을 위한 제2회 문화예술콘서트 성료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주지부, 전라북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이 주최하고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장애인을 위한 제2회 문화예술콘서트'가 지난 21일 전주 풍남문화광장에서 열렸다.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콘서트는 장애인의 문화예술참여 확대와 코로나로 지친 장애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는 물론 풍요로운 삶, 즐거운 삶에 이바지하고자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안옥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주지부장, 이수정 전라북도 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장, 황익옥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이사장, 황금석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이사, 최주만·이남숙·남편우 전주시의회 의원, 김예중 대명가요TV 대표 등 내빈들과 행사에 초청된 장애인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식, 공로표창, 문화공연, 행운권추첨 등으로 구성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최주만 전주시의회 의원과 백현규 백송회관 대표가 공로 표창을 받았다.

이수정, 정순임, 강혜원, 김선이, 김동석, 문민오, 류명현,



송용섭, 손길천씨 등 가수들과 정하모의 하모니카, 풍사모(대표 김정리), 이랑장구 동남발매(대표 최정욱), 동봉구루 모 신기성 등이 무대 위에 올라 공연장 분위기를 흥겹게 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기본방역 수칙 준수 하에 이뤄졌으며, 유튜브 대명가요TV를 통해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김재훈 기자

남원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역량강화 교육 실시

남원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19일 남원의료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남원형 통합돌봄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남원형 통합돌봄은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사람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정책이다.

남원시에 거주중인 사회적 약자는 23,433명으로 전체 인구 29.8%(22.7% 말 기준)에 해당되는 등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이날 교육에는 복지, 보건·의료, 주거, 돌봄 및 재가 생활지원 등 10개 공공분야 담당 공무원과 12개 민간기관 실무자 등 70여 명이 참석, 정희경 교수(광주대 사회복지 전문대학원)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이해, 지역케어 회의운영과 활성화 방안, 선도지역의 통합돌봄 추진 사례 강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달 공무원 사례발표로 민·관 협업의 중요성 강조와 지역케어회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축항동장 하인선은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취약계층을 포함한 관내 주민들을 직접 찾아 보고 살피는 소동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22일에는 동 대나무골봉사단(8명, 단장 정태식)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나눔봉사를 실천했다.

대상은 축항동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박00, 79세) 맥으로, 뒷밭을 가로지르는 곳에 외부화장실이 있어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이 진로를 방해하고 모기 등 해충으로 불편함을 겪는 곳으로, 봉사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제조장비를 이용해 화장실로 통하는 통로를 정비하고 방역을 실시했다.

하인선 축항동장은 생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봉사에 참여한 대나무골봉사단에게 감사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소동행정을 통해 관내 소외계층 발굴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축항동 대나무골봉사단, 나눔봉사 실천

남원시 축항동장 하인선은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취약계층을 포함한 관내 주민들을 직접 찾아 보고 살피는 소동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22일에는 동 대나무골봉사단(8명, 단장 정태식)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나눔봉사를 실천했다.

대상은 축항동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박00, 79세) 맥으로, 뒷밭을 가로지르는 곳에 외부화장실이 있어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이 진로를 방해하고 모기 등 해충으로 불편함을 겪는 곳으로, 봉사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제조장비를 이용해 화장실로 통하는 통로를 정비하고 방역을 실시했다.

하인선 축항동장은 생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봉사에 참여한 대나무골봉사단에게 감사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소동행정을 통해 관내 소외계층 발굴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성일유엔아이, 편백나무 생활실 조성사업 시행

남원에 위치한 정신재활시설 성일유엔아이(원장 박지영)는 산림복지진흥원의 2022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4천8백만원 상당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어 8월 중순부터 공사를 한 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성일유엔아이는 2005년 11월 개소입소 30명, 이용20명하여 병원에서 퇴원한 정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원활한 지역사회 사회복귀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대부분의 입소 및 이용회원의 경우 장기적인 병원생활로 면역력이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편백나무 생활실 조성으로 입소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제공과 피톤치드의 작용으로 면역력 증가에 따른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산시 청소년 전통문화예술제' 초청 공연 개최

군산시는 지난 20일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광장에서 관내 청소년 및 시민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 전통문화예술제를 실시했다.

시가 주최, 시립법인 진포문화예술원이 주관하는 '군산시 청소년 전통문화예술제'는 문화예술계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매년 공모를 통해 열리는 축제이다.

크게 음악 부문, 무용 부문, 사물놀이 부문, 문학 부문으로 나눠지는데 올해는 지역 내 우수청소년들이 참여해 사물놀이, 가요, 대금 연주, 민요 및 전통무용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쳤다.

이전날 아동청소년과장은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틈틈이 연습하고 공연에 참여한 학생들이 매우 대견하다"며 "청소년어울림마당이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작은 씨앗이 돼 미래 예술계의 주역들을 키워내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문화와 건전한 사고력을 키워주기 위해 청소년 어울림마당으로 9월 타악을 올려다, 10월 유스스포츠페스티벌을 시행할 예정이다. /군산=김관근 기자



부안 행안면 체육회, 근농인재육성장학금 기탁

행안면 체육회(회장 김중우)에서는 지난 19일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을 방문하여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김중우 회장은 "최근 부안군도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18일 체육회 임원회의를 거쳐 제15회 행안면의날 행사를 전격 취소 결정하게 되었고, 취소에 따른 사비 미지출되는 자부담 일부를 장학금으로 기탁하여 의미를 더 하자는 임원들의 결정에 따라 이번 기탁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기탁이 다른 읍·면체육회나 사회단체 등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 감소세로 활기를 찾아가고 있던 각종 행사 및 축제들이 최근 재확산으로 인해 연기·취소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주민 화합의 장인 면민의 날 행사가 취소되어 체육회에서도 아쉬운 마음이 큼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기탁으로 미래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일에 동참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국제로타리3670지구, 소외계층 희망나눔 쌀 전달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22일 도청사에서 국제로타리 3670지구(총재 국승일)와 희망나눔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도지사, 국승일 국제로타리 3670지구 총재, 김광호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전달식에서 국제로타리 3670지구는 제51대·제52대 이취임식을 통해 모금한 성금(약 700만원)으로 쌀(20kg) 140포대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했다.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는 지정 기탁된 쌀 140포를 도내 14개 시군자원봉사센터의 추천을 받아 사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과 이밖에 수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초이의 봉사정신으로 굶은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지역발전과 사회통합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심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전북 만들기에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고 말했다.

국승일 총재는 "이번 전달식을 계기로 코로나19 장기화 및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나눔활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5천여 회원들이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김경수 기자